

홍콩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정지출 확대조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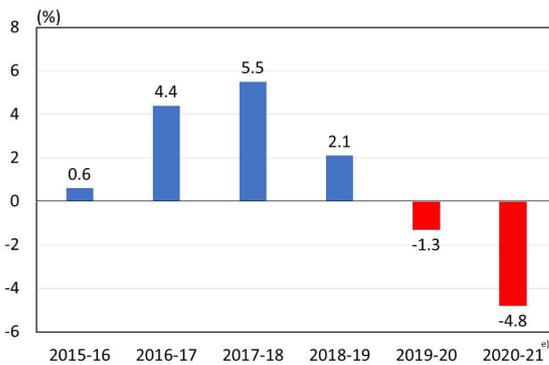
□ 홍콩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3차에 걸친 코로나19 지원기금 조성 및 재정보강을 통해 GDP의 약 11%에 해당하는 3,115억 홍콩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홍콩 GDP 성장률을 약 5%p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홍콩의 재정수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규모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0~21년중(회계연도기준, 2020.4월~2021.3월) 큰 폭의 적자가 예상

* 2019~20년중 홍콩 재정수지는 시위사태 등의 영향으로 15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

— 홍콩 정부는 당초 2020~21년중 1,391억 홍콩달러 규모의 재정적자(GDP대비 -4.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2020.2월)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지속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측

홍콩의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



자료: 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 Bureau

홍콩의 항목별 정부수입 구성

(%)	2018~19	2019~20
■ 운영수입	75.8	74.6
(법인세)	27.8	25.5
(인지세)	13.3	12.1
(소득세)	10.0	10.6
(일반세)	2.9	3.2
(기타 운영수입) ¹⁾	21.8	23.1
■ 자본수입	24.2	25.4
(토지개발이득세)	19.5	22.8
(기타 자본수입)	4.7	2.6
합계	100.0	100.0

주: 1) 경마세 및 공공주택 임대료 등
 자료: 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 Bureau

□ 최근 홍콩 정부는 겨울철 독감과 함께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방역능력 강화 및 코로나19 취약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 등을 위해 240억 홍콩달러 규모의 3차 코로나19 지원기금 조성계획을 발표(9.15일)

○ 3차 코로나19 지원기금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조달 및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시설을 확충하고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요식업, 관광업, 스포츠·오락시설업 및 운송업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

- 또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각종 세금 등의 감면조치를 연장하고 2020.4월부터 시행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100% 특별보증 관련 한도* 및 상환기간(3년 → 5년)도 확대

* 특별보증 관련 한도는 기존에 6개월간 임차료·직원급여 또는 4백만 홍콩달러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를 12개월간 임차료·직원급여 또는 5백만 홍콩달러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상향 조정

홍콩 정부의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지출 확대조치 내용

	규모	주요 내용
· 1차 기금	300억 홍콩달러 (2.21일 의회 승인)	- 코로나19에 대응한 의료시스템 지원 및 전국민 마스크 지급 - 기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재정보강	1,200억 홍콩달러 (2.26일 의회 승인)	- 홍콩 시민권자(1인당)에게 10,000홍콩달러 현금 지급 - 세금, 공공주택 임대료 및 전기료 등 감면 -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유지 관련 지원금 지급
· 2차 기금	1,375억 홍콩달러 (4.18일 의회 승인)	- 코로나19 취약업종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지하철 요금 등 할인
· 3차 기금	240억 홍콩달러 (9.15일 계획 발표)	- 코로나19 백신 조달 및 검역시설 확충 - 코로나19 취약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 - 공공주택 임대료 및 상하수도료 등 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제도 관련 금액 및 기간 연장

자료: 홍콩 정부

- 홍콩 정부의 재정유보금(fiscal reserves)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3월말 1조 1천억 홍콩달러에서 2021.3월말에는 2003년 수준인 8천억 홍콩달러(약 118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
- 홍콩 정부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취약업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
 -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서비스업 및 관광업 비중이 높은 홍콩경제의 특성상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통해 조속히 국경을 재개방하는 것이 홍콩경제의 회복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평가
- 한편 홍콩내 재정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규모가 큰 편이지만 현재까지는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2021년중에도 경기부진이 지속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 등에서 세수차질이 발생할 경우 홍콩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